

建築士의 새로운 座標

金 熙 春 (서울 工大教授)

建築界의 概觀: 建築이란 人間이 살 집을 만드는 作業이다. 이 作業의 主体가 建築家이며 建築家에게 社会的으로 公認된 役割을 부여하기 위하여 約束된 地位가 建築士이다. 建築士는 建築家の 社会的 名稱이며 其實은 同意語인 것이다. 本稿에서는 建築從事者 一般을 이야기할 때 建築家로 特히 그 職分과 結付시켜 指稱할 必要가 있을 때 建築士로 그 表現을 混用하기로 한다.

1964年 4月 建築士法이 確定되어 建築士의 名義로 設計業務가 進行된 것이 그間 12年이 經過하였다.

이 짧은 建築士의 年輪을 쌓아가는 동안 建築界는 国内外로 많은 變化의 潮流에 対処하지 않을 수 없었다.

国内的으로는 經濟開發과 人口의 急增으로 새로운 規模와 機能을 갖는 建築物의 需要가 크게 늘게 되어서 1960年代 後半의 建築界는 바람직한 職種으로서 脚光을 받을 만큼 跳躍의 機會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質的量的으로 現代의이라고 할만한 建築物들이 많이 設計 施工되기 始作하였다.

國際적으로는 巨匠時代의 遺産이 漸次로 衰退의 징후를 보이면서 새로운 表現과 技術의 冒險이 유럽 및 美國을 中心으로 展開되었던 時期이기도 하였다.

特히 機能主義로 불리우는 國際主義 建築 樣式의 쇠퇴에 對한 反作用으로서 나타난 地域的 傳統性을 回復하려는 一連의 國際的 潮流는 韓國建築界에 있어서 不斷한 論

議로 이끌어 졌다. 이것은 現代의 技術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劃一的인 機能表現의 現代建築으로부터 過去에서 오늘에 이어지는 建築의 傳統性을 回復하자는 地域主義的 自我發見의 要求인 것이다.

한편 建築界에 있어서 60年代 後半의 이러한 아카데미한 霧圍氣는 1970年代 中半에 이르러 創作의 方向에 있어서 商業主義 내지는 個人主義的인 傾向으로 通俗化하는 方向을 보이게 되면서 建築을 文化의 한 바탕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努力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特히 人口의 都市 集中으로 야기된 異狀建築景氣는 都市建築物의 基本이 되는 住宅에 있어서 需要의 急增을 보았고 이에 便乘한 一部 住宅建設業者들은 建築을 創作의 對象으로부터 不動產 投機의 對象으로 간주하여 構造 意匠 및 計劃에 있어서 大衆의 기호에 지나치게 迎合하여 수많은 粗惡한 作品들을 生産해 온 것은 周知의 事實인 것이다.

建築은 消費材와 달라서 일단 生産된 粗惡品은 이 時代의 遺産으로서 后孫들에게 傳達되며 國際적으로도 그 나라 文化尺度의 한 基準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오늘날의 韓國建築이 果然 우리 時代 文化의 眞情한 表情일 수 있는가 라는 反問을 던질 때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危機感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韓國建築界는 다가오는 80年代의 未來像에 對處하기 위하여 새로운 座標을 設定할 때가 온 것이며 그 主役은 建築士 自身들인 것이다.

建築士의 課題: 本稿에서는 韓國現代建築의 主体로서 建築士가 當面한 課題를 첫째, 傳統性的의 回復 둘째,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 擴張된 概念으로 바라보는 問題等을 두고 이러한 課題에 直面한 建築士로서의 새로운 價值觀의 問題에 關해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西歐에 있어서 1900年代 前半은 새로운 技術 새로운 文物 새로운 時代 精神을 孕胎하기 위한 陣痛이 戰爭과 더불어 수행되어 20世紀 文物의 特質을 뚜렷이 보여준 格동의 時期였다.

建築의 分野에 있어서도 지나간 時代의 技術과 創作精神을 清算하고 20世紀 建築이 나아갈 方向을 提示한 이른바 巨匠建築家들이 誕生한 것도 이 時期였다. 巨匠들의 誕生은 결코 時代의 偶然이 아니고 時代의 要求에서 였고 이들은 建築에 對한 이 時代의 要求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깨달은 先覺者들인 것이다.

그러나 巨匠建築家들에 依해서 樹立된 現代 建築의 方法論은 終戰과 더불어 새로운 評價를 받기에 이르렀다.

1950年代 以後 技術社會의 모습이 機械技術로부터 電子技術로 變貌하게 되었고 戰爭后 復舊된 經濟의 바탕에서 社會는 電子技術 社會의 樂觀的인 未來像을 期待하게 되었다.

이러한 樂觀은 機械工學의 可能性 으로부터 電子工學技術의 可能性의 바탕위에서 建築과 都市의 새로운 方法을 提示하고자 하는 이른바 未來派 建築家의 誕生을 보게끔 되었다.

그러나 技術의 無限한 可能性 및 進歩의 期待아래 새로운 世代의 建築家들에 依한 建築創作의 精神 및 技術에 關한 冒險과 試圖들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오일쇼크로 因한 世界景氣의 不安 冷戰의 持續 人口의 增加로서 야기된 環境의 問題等의 理由로 해서 주춤하게 되었으며 建築의 試圖들이 보다 現實性을 띄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있어서 現代建築의 潮流는,

첫째, 國際主義 建築樣式의 構造 및 表現의 劃一性에서 脫皮하여 建築 그 自體의 獨自의 表現의 意味를 尊重하며 人間性을 回復하자는 命題가 一連의 地域主義로 比화하는 傾向을 보이는 것.

둘째, 人口의 增加로 야기된 環境問題의 一環으로서 보다 人間이 살만한 都市를 만들고 定住할 住居 環境을 具備하는 力法에 關한 模索.

셋째, 보다 效率的이고 科學的으로 建築과 都市를 計劃, 設計, 施工하는 作業 시스템 改造의 問題. 等으로 要約될 수가 있을 것이다.

建築의 傳統性: 이제 이와 같은 現代 建築의 樣相아래 韓國建築界가 처한 立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한 立場에서 建築士의 새로운 座標을 設定해 보기로 한다.

現代 韓國建築界가 겪은 가장 큰 不幸은 日帝에 依해서 建築의 傳統性이 他意的으로 斷絶되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時期的으로 西歐 各國의 現代建築이 巨匠의 時代를 맞이하여 成熟期에 접어들 무렵 韓國의 建築界는 日帝에 依해서 一種의 折衷主義 樣式으로 現代建築을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韓國建築界가 겪은 타격은

첫째, 過去로부터 이어오던 建築의 傳統性和 方法論이 現代建築의 새로운 樣相과 接觸하여 이른바 文化相互 衝擊의 陣痛을 거쳐 韓國的인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傳統性的의 바탕에서 現代建築의 起點을 이룰 수 있는 機會를 가질수가 없었다는 것.

둘째, 過去의 匠人的인 建築家의 建築 方法과 現代的 意味의 建築家의 方法을 이어주는 채널이 없었다는 것.

셋째, 現代 建築의 모습을 一種의 折衷主義를 통해서 받아들여 現代 建築의 眞面과 接할 수 있는 機會를 일찍 가질 수 없었다는 것.

等으로서 이는 傳統性的의 斷絶위에 옮지 못한 外來文化의 移植이라고 要約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1945年 8. 15日 解放이 되고 美軍政庁이 들어서면서 社會의 底辺에서 부터 새로운 國家에 對한 期待感이 近代化라는 至上命題로 代辨되었고 近代化= 西歐化라는 思潮가 事大主義의 한 殘滓로서 풍미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口號의 開放과 더불어 美國을 通하여 밀어닥친 外來文物의 洪水는 建築分野에도 미쳐 西歐의 現代建築에 批判없이 魅了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무렵 받아들였던 現代 建築은 그 精神이 아니라 단지 그 껍질이 없다는 데에 注意를 환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潮流는 60年代의 經濟復興과 더불어 建築景氣의 붐을 이루게 되어 量的 質的으로 現代建築의 面貌를 갖춘 建築物이 많이 지어짐에 따라 有能한 新進 建築家들은 그 나름대로의 創作意志가 發揮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어떤 意味로는 韓國 建築界에 아카데미즘이 誕生할 기미마저 보이게 되었다.

특히 엑스포 70" 韓國館 設計에 즈음한 時期에 이러한 霧圍氣는 高潮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霧圍氣는 個人主義的 商業主義의 傾向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勿論 갑자기 建築의 質의 水準 보다는 그 量的 必要性이 增大한 데에도 그 理由가 있을 것이나 우선은 建築行爲의 主体者로서의 建築家의 責任을 外面할 수 없다.

現在의 指導的인 建築家들은 名實共히 韓國現代 建築의 精神的 支柱로서의 役割 그 作品과 活動에서 다할 수 없었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으며 新進建築家들은 그들의 內的 成熟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外的 與件에 더욱 圧到되어 있어서 建築의 方法을 너무도 쉽게 看過해온 듯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60年 後半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作品의 根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아마도 美國과 日本의 影響일 것이다.

現代建築創作의 모티브를 踏實的인 體驗으로서가 아니라 外國 資料等의 間接媒介를 通하여 모방적으로 받아 들여 그것의 어떤 形態 어떤 精神 어떤 디테일의 색다른 것에 對한 滿足에 빠져 버린 듯한 것은 가장 有能한 建築家의 자가 當否의 行爲라고 하겠다.

우리는 비록 짧게 겪은 建築界의 年輪동안이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의 內面에 우리의 雰圍氣 우리의 技術 우리의 디테일 등을 謀索하는 真正한 意味의 創作의 陣痛이 있었는가를 反問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扶余博物館 國立綜合博物館等의 設計와 더불어 야기된 이른바 傳統主義 地域主義 風土主義等의 어휘로 表現되고 있는 建築에 있어서의 歷史的 正統方向에 關한 論亂이 저널리즘을 通하여 惹起된 것은 韓國 現代 建築史의 한 이포크로서 記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傳統論議는 國立劇場 서울市民會館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은 過去의 디테일 내지는 形態의 律調를 現代의 手法로서 變形 進化하는 次元에 벗은 感이 있다해도 國立綜合博物館의 경우보다는 훨씬 進歩된 傳統性 具現의 한 努力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建築은 그 時代의 거울이라고 한다.

이것은 建築을 構成하고 있는 모든 要素가 同時代의 要求에 對한 自然스런 反影이라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어느 時代의 建築에서도 거기에는 그 時代의 社會와 文化와 技術을 가늠할 수 있는 尺度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特質이 하나의 秩序體系로 要約될 수 있을 때 이를 樣式이라고 한다.

表現된 結果로서의 過去의 樣式 그 自体에서부터 建築의 傳統性의 根源을 찾자고 하는 努力은 建築史研究 過程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努力의 短的인 表現은 어떤 경우에는 古典主義로 어떤 경우에는 折衷主義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一種의 過渡期的 現象에 不過하다고 본다.

建築의 傳統性을 過去의 具體的인 樣式의 寶庫에서만 찾자는 努力은 建築史를 通하여 過去를 再生하는 意味를 갖고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表現된 것 裏面에 감추어진 時代를 超越한 價値를 갖는 것 所謂 建築史的인 連續性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過去의 모습의 再

現에서가 아니라 오늘날 韓國에 있어서 建築에 對한 가장 切實한 要求가 무엇인가를 發見하는 姿勢인 것이다.

現實의 要求가 가장 切實하게 反影되었을 때 이미 그 裏面에는 建築史的인 連續性이 內在하게 되고 真正한 意味에서의 傳統性이 樹立되는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方法으로서 우리는 비로서 建築史의 寶庫를 들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歷史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史實이 아니라 現代와 對話가 可能한 精神을 發見하는데 있다.

우리는 國立綜合博物館을 起點으로 本格化된 傳統論議 및 이러한 論議의 對象으로서 그 以後에 建立된 몇몇 建築物이 韓國現代建築의 한 結論으로서 把握하기 보다는 새로운 胎動을 向한 觸媒로서의 過渡期的 現實로 보고 싶다. 그것은 옳은 것의 意味를 明確하게 하는 證據로서의 또한 意味를 갖기 때문이다.

이제 韓國建築이 그 表現精神에서 獨自的인 價値를 갖기 위해서는 建築的 傳統性을 찾는 것이 그 課題이다.

이미 技術의 次元에서 建築은 西歐에 依해서 석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技術을 綿密히 檢討하여 받아 드리고 同時에 韓國特質의 次元에서 우리의 것이 찾아져야 한다.

오늘날의 建築은 建築의 表現 그 自体에 있어서 英雄的인 建築家를 必要로 하지 않으나 그 表現의 精神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要求하고 있다.

日本의 現代建築이 胎動하는 過程에 있어서 몇 사람의 日本建築家들이 日本建築의 傳統性 樹立에 끼친 功勞가 無視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韓國建築界에 있어서도 現實의 가장 切實한 要求를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建築의 모습일 수 있는 建築을 만들 수 있는 建築家— 그것이 個人이던 集團이던간에 誕生을 期待하고 싶다.

그러한 建築家의 비전이 正當한 것이라면 이는 모든 建築家의 精神에 反應되어 建築의 新局面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以上으로 質의 次元에서 韓國建築界가 가야할 길이 傳統性의 樹立에 있음을 生覺해 보았고 이러한 追求는 建築을 文化의 한 断面으로서 把握했을 때에 그 意味가 있게 된다.

環境創造者: 建築을 必要性의 觀點에서 바라볼 때 특히 그것이 都市의 一部로서 把握될 때 우리는 이제 韓國建築界의 座標를 環境의 問題와 結付시키지 않을 수 없는 與件에 處해 있다.

20世紀 技術文明은 삶의 進歩를 가져다주는 同時에 人類社會의 精神의 側面에 環境의 危機라고 하는 함정을 가져다 주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 根源은 主로 人口의 增加에 따른 急激한 都市化 및 工業化의 展開에 두고 있다.

環境에 關한 危機意識은 오늘날에는 食卓의 話題거리가 될 程度로 普遍化되었음은 그 深刻度의 輕重을 헤아리게 한다.

建築은 漸次로 그 獨自의인 意味로부터 都市環境의 一部로서 把握된다.

獨自性이 豊富한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環境의 一部로서의 用과 美를 다하지 못할때 그것은 이미 훌륭한 建築物일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把握되는 現代建築이 追求하는 길은 첫째 都市에서 부터 人間性을 回復하는것 둘째 增加하는 人口를 收容할 居處를 効果的으로 마련하는 것. 셋째 資源 및 에너지의 危機로부터 建築을 救出하는 것.

넷째 環境의 一部로서의 建築物을 만드는 建築專門人의 姿勢와 作業시스템을 새로운 要求에 맞도록 改造하는 것 等인 것이다.

都市의 建築密度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都市建築은 이제 그 自體의 形態와 機能을 다른 建物 및 街路 自然과의 複合關係에서부터 把握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西歐의 建築教育에 있어서 都市設計學 및 造景學 等の 比重이 漸次로 高潮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韓國建築界에 있어서도 都市計劃法 및 建築法을 漸次로 日照權 駐車問題, 美觀問題等에 注重하여 制度化하고 있는 實情은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 보고져 하는 制度的 努力의 一環인 것이다.

그러나 制度는 언제나 그것을 運用하는 人間의 智慧에 따라 거기에 順應할 길과 離脫할 길이 同時에 열려있는 것이다.

問題는 建築家의 社會的인 職分으로서의 建築士들이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 理解하고 그러한 理解의 바탕위에서 創造의 意味를 찾는 良識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을때 비로서 制度가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 된다.

建築士는 그 教育의 段階에서부터 資格獲得의 過程에서 이제까지는 그 技術的 機能的인 側面에서 그 資質이 닦여지고 評價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建築 環境에 對한 基本的인 소양과 識見이 아울러 教育되고 評價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建築士는 漸次로 그 價值觀을 職能의 次元에 그치지 말고 環境創造家로서의 擴張된 意味에 두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스스로의 昇格이 곧 建築 環境의 質의 改善에 直結됨을 새로운 方向으로 느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創造의 欲求를 個人主義的인 形態表現의 具現에 두는 所謂 디자이너로서의 藝術趣向의 感想主義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할 것이며 同時에 一部 建築主의 私利에 迎合하여 形態 및 技術에 關한 建築의 基本的인 要素조차 具現化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許可爲主式 建築作風은 良貨를 몰아내는 建築界의 惡貨인 것으로서 스스로의 自覺과 이에 對한 制度的 措置가 아울러 촉구된다.

우리는 新開發地區에 無數히 세워지고 있는 根淵을 알 수 없는 住居建築樣式의 虛飾性이 곧 이 時代 住居建築의 모습으로 남겨 주어야 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建築이 時代의 必然性에서 環境의 一部가 되버린 以上 匠人으로서의 建築家 藝術趣向의 素養은 이미 建築家 에게 必要 條件이지 充分條件은 아니다.

環境의 一部로서 建築이 갖는 意味의 바탕에서 建築家의 社會的 役割을 把握할 때 그리하여 環境創造家로서의 擴張된 意味의 價值觀이 體得될 때 비로서 充分히 條件을 갖춘 建築士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擴張된 價值觀아래서 보다 複合的인 機能을 갖는 都市 環境을 다룰 수 있는 建築士는 個人으로서 보다도 새로운 組織 構成이 必要하게 된다.

環境의 一部로서의 建築은 이미 그 構成要素가 너무도 複合的이어서 그 問題의 解決은 한 個人의 判斷力의 限界를 훨씬 超越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建築과 都市는 建築 그 自體의 手法 以外에도 電算學 社會 工學等 여러 複合分野의 連 계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各 分野의 高度의 테크닉이 하나로 集積되고 構造 設備 計劃의 모든 建築手法에서 철저한 探索과 試 圖들이 모아질때 비로서 建築의 完製品이 誕生할 것이다.

오늘날의 韓國建築界의 一般的 設計시스템으로는 앞으로의 建築에 對한 새로운 要求와 情報 그리고 複合的인 機能解決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現在 大分部의 建築物은 設計期間, 設計組織, 設計費 等の 限界로 해서 철저한 研究가 必然的으로 缺如될 수밖에 없고 尙상 未完成의 段階에서 그 끝맺음을 본다해도 할 수가 있겠다. 새로운 座標: 이상으로 韓國建築界가 設定해야 할 座標를. 첫째, 傳統性을 回復하는 것.

둘째,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의 擴張된 意味로 把握하는 것. 等으로 設定하고 이렇게 設定된 座標 위에서 建築士의 役割 및 姿勢에 對하여 살펴 보았다.

建築士는 이제 建築史的인 傳統性을 樹立할 轉機를 맞이하고 있으며 實際的인 建築行爲의 領域이 都市의 스케일로 넓어짐에 따라 複合的인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個人的인 職分의 次元에서 組織的인 協同作業의 次元으로 變革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現實은 이제 作家로서의 建築士보다는 社會的 指導者로서의 建築士를 要求하고 있으며 이러한 要求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建築教育에 있어서 環境 設計의 意味 傳統性 回復을 위한 教育의 再檢計 새로운 概念의 設計者組織의 作業에 適應하기 위한 協同作業 및 體系의 設計 方法論의 教育 等の 側面이 謀索되어야 하겠다.

建築에 關한 여러가지 制度 및 그 運用 역시 環境을 改善시키기 위한 方向에 力點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建築界의 여러 組織 團體 역시 그 役割을 建築士의 質의 向上을 위한 活動의 展開에 그 目的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